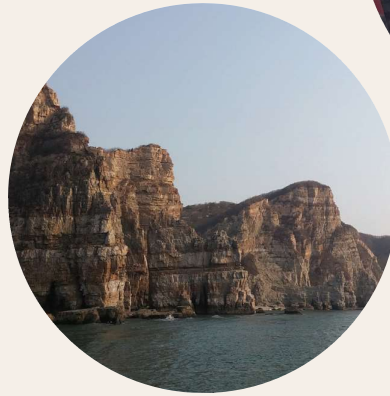




섬마을에 찾아가는 날씨선생님!

지난 4월, 닷새에 걸쳐 직원들과 함께 '산 건너 바다 건너' 서해5도로 향했다.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의 섬을 일컫는 말이다. 그중 우리가 방문한 곳은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로 상대적으로 물에 비해 문화적으로 취약한 섬에 위치한 학교의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름 하여 '섬마을에 찾아가는 날씨선생님!'



대청초등학교 5학년 강승범

'섬마을로 찾아오신 날씨선생님'을 만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북극빙하의 감소, 농작물 재배지의 북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좋은 경험이고 기상청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다. 기후나 기상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겼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좋겠다.

섬마을 아이들의
교육 소감문



정태영
수도권기상청


제2의 봄을 만끽하다

육지와 섬을 잇는 배는 하루에 1~2번 왕복으로 운행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덕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이곳저곳 섬들을 돌아보았다. 4월 하순에 찾아간 서해5도는 봄을 상징하는 벚꽃과 우아한 자태의 목련 등이 만발해 있었다. 알고 보니, 서해5도는 서울에 비해 3~4주 봄이 늦게 찾아온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이미 그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초라하게 지고 있을 때였지만 이곳에서는 제2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창한 햇살과 봄바람에 실랑실랑 흔들리는 꽃들의 모습은 일상에 쫓겨 꽃구경 한번 가보지 못한 나를 위로해주는 듯 보였다.

서해5도에 묻어나는 슬픔

이렇게 행복한 봄기운과는 대조적으로 서해5도는 곳곳에 슬픔이 묻어있다. 그 까닭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백령도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평화공원에 설치된 연평도 포격 당시 희생된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서는 절로 숙연해지며, 배를 타고 멀리서 바라본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음을 가슴속 깊이 새겨놔야겠다.

순박한 섬 아이들과의 날씨 이야기

섬에 대한 탐색을 마친 후,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씩씩했다. 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내가 지녔던 선입견이 괜히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또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면서 가장 놀라우면서도 공감에 갔던 점이 섬에 있는 아이들은 풍량과 파도, 안개와 시정거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일기예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나보다도 자주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 같았다. 흔히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이곳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해상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내일 배가 과연 뜰 수 있는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이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처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도시에서 도시지역에 이르기까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문하였던 며칠 동안 아름다운 섬에서 순박한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많은 걸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많이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인천보다 평양이 더 가깝다는 백령도에서 하루빨리 '백령 발(發) 복한 행(行)' 배를 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백령초등학교 4학년 김오현

일기예보가 방송에서 보도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후를 정확히 알면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상기후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연평초등학교 4학년 유대건

날씨는 기분처럼 날마다 바뀌고 기후는 성격처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날씨 공부를 하며 기상청의 임무, 하는 일,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알았다.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연평중학교 3학년 고성현

연평도는 섬이어서 기상악화가 심해지면 육지로 나가는 배가 통제되기 때문에 더욱 날씨에 영향이 크다. 그렇기에 날씨를 예측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는 장소가 바로 기상청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인데 나는 기상청이 이러한 역할을 하여 우리가 자연재해에 확실히 대처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고 기상청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했다.